



정교회주보

제2434호

2023.8.20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키프로스의 수도 니코시아에서 남쪽으로 55km 떨어진 지역에는 카토 레프카라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상주인구 수백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유서 깊은 다섯 개의 성당이 들어서 있다. 그중의 하나가 성 미카엘 대천사 성당(사진)으로 12세기에 돌이 있는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이다.



마태오 제 11 주일

사무엘 예언자

(제2조 • 조과 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81
- 성모 안식 축일 찬양송 181
- 성당 찬양송
- 성모 안식 축일 시기송 181
- 사도경 : 고린토 전 9,2~12 · (봉)211
- 복음경 : 마태오 18,23~35 ... 115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심판에 대하여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가르침)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모든 행동을 계산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벌을 받게 되겠지만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 영혼을 위해 이로운 일을 했다면 왕관과 온갖 좋은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으로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반대로 말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합시다.

덕을 쌓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를 통해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심판대 앞으로 다가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바칩니다. 아멘

'구원으로 가는 길' 중에서

미덕일까요, 아니면 단점일까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사도 바울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줍니다.”(고린토 전서 4,12-13)

사도 바울로의 이 대조되는 세 가지 표현은 관용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 관용은 미덕일까, 나약한 성품일까? 사도 바울로는 다른 편지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필립비 4,5) 즉, 관용이 당신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용을 심각한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은 무엇일까요? 미덕일까요, 아니면 단점일까요? 올바른 답은 어느 것일까요?

관용은 미덕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게 될 관용의 이유와 그 결과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관용을 베푼다면 우리의 관용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용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근원에서 유래되어 상대방을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미덕이 됩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용서와 함께하는 관용은 매우 큰 미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용이 가져올 결과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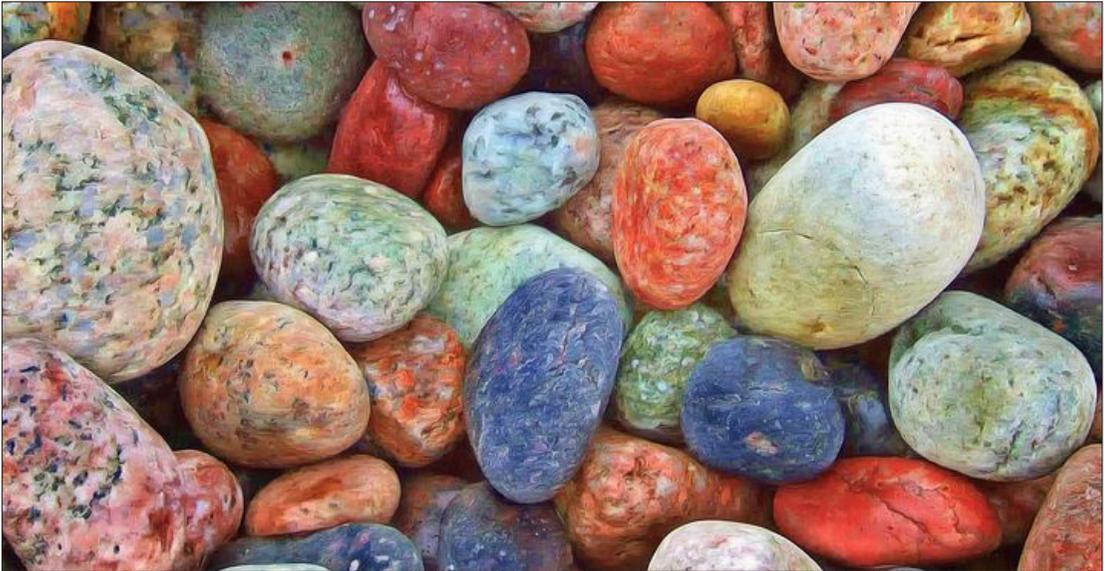
상대방이 우리가 순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관대함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는 무례한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러면 결국 불행하게도 우리의 관용에 비록 좋은 의도가 있었더라도 미덕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관용으로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관용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만, 반드시 분별력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선생님이 관용을 현명하게 베푼다면 그들은 좋은 부모이고 좋은 선생님인데,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그들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쓴다면 관용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가르침 6

트리폰 수도원장(미국 워싱턴주 바손섬 구세주 수도원)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마태오 7,1)

아 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능성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저의 영적 아버지이신 디미트리 수도사제는 러시아의 공산 정권을 피해 망명하신 분이로서 그곳에서 온갖 구타와 투옥을 겪었지만 자신을 고문한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드러내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단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행하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말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겠노라고 우리 자신이 기꺼이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비로소 사랑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과 친절, 자비의 수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요한 8,15)

“**우** 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다.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야고보 4,12)



소 식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축일을 보내고

지난 15일 축일을 맞은 전주 성당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의 집전으로 축일 성찬예배를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성찬예배에 이어서 성모 안식 축일 성상 행렬과 광복절 대영광식이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14일 축일 대만과에서 '성모님은 우리를 신인(神人)께로 인도하신다.'라는 주제로, 15일 성찬예배에서는 '성모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라는 주제로 설교하였습니다.

전주, 서울, 부산, 목포, 거제도,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참례자들은 성당 내부의 돔, 지성소 등에 그려진 성화를 보며 큰 감동을 받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오찬 인사말에서 전주 성당 건축을 도와주신 기증자들, 성화 제작 봉사자들, 축일을 준비한 전주 성당 공동체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언제나 성모님의 보호가 함께하시길 기원하였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하느님

성인의 가르침

한번은 거룩한 어느 은수자가 길에서 간질병 환자를 만났다. 그 환자는 금식도,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성인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를 불행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자신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청드렸다. 하느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대로 해주셨다.

사악한 영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만큼 성인도 금식과 기도를 늘려나갔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은수자를 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